

고대인들의 역병 인식 -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

최성웅, 유원준¹, 김홍균²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협동과정, ¹경희대학교 사학과, ²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The Ancient Understanding of Epidemic Development

Choi Seong Woong, Yoo Woon Jun¹, Kim Hong Kyoon²

Dept. Oriental Medicine of KyungHee University, ¹Dept. History of KyungHee University,
²The Korea Traditional Medical History Institute

The history of medicine has a strong correlation to the ancient development of epidemics. Although the study of the history of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does not put much emphasis in understanding the flow of medical history in relation to epidemics, it largely impacted the development of this epidemic and the compilation and evolution of treatment methods. The same was true for Korea as they linked development of epidemics, unusual natural conditions, and social phenomenons from ancient documents. This study methodically classifies the epidemics mentioned in 『三國史記』 and concludes on how ancient Koreans understood epidemics.

Keyword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pidemic,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korean ancient perception of the epidimic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하게 되고, 몸의 기운이 충만하지 않을 때 외부로부터 邪氣를 받거나, 내부 五臟六腑의 부조화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외부로부터 받는 邪氣는 대표적으로 風寒暑濕燥火, 六淫을 들 수 있으나, 이외에도 “疫病”이라고 불리는 전염성을 가진 질병은 환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옮겨져 작게는 한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크게는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스는 550명의 병

사를 이끌고 아스텍 문명의 중심지인 테노치티틀란에 쳐들어갔다. 스페인 군은 우세한 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불리와 더불어 숫적으로 30배 이상 우세했던 아스텍 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痘瘡 바이러스가 스페인 군 쪽에서 아스텍 군 쪽으로 옮겨가면서, 겨우 몇 주 만에 전체 인구의 1/4이 사망하고, 결국 아스텍 문명은 스페인 군에 점령당하고 말았다.¹⁾ 이 역병은 계속 번져나가 남쪽의 잉카 문명에도 전해졌는데, 피사로의 스페인 군이 쳐들어간 것은 1530년의 일이었으나, 그보다 앞선 1527년에 이미 痘瘡이 퍼져서 사망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²⁾

접수 ▶ 2007년 11월 4일 수정 ▶ 2007년 12월 8일 채택 ▶ 2007년 12월 18일
교신저자 ▶ 김홍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0-14 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Tel 02-458-5859 Fax 02-456-8419 E-mail naiching@naver.com

1) 스페인인들은 어려서부터 두창에 면역이 되어 있었으나, 아스텍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 전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2) 예병일,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염병』, (주)살림출판사, 2007:47-54.

유럽 대륙 역시 역병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14세기경 유럽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었고, 도시는 혼잡하고 더러웠으며, 하수도가 부족해 쓰레기가 넘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쥐를 통해 전염되는 페스트균이 대유행하여, 4년이 채 안되어 유럽 전인구의 1/3이 사망했다. 사망자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봉건제와 가톨릭교회 중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체제가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³⁾

이처럼, 역병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오랜 시간동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한반도의 고대인들 역시 이러한 역병을 앓았을 것인데,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 백제, 고구려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고대인들의 역병에 대한 인식과 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삼국사기에 나타난 疫病

“疫”이라는 단어는 『삼국사기』에 네 종류로 기술되어 있는데, 大疫이 14번, 疫이 2번, 民疫, 疾疫이 각각 1번씩이다. 大疫은 일반적으로 疫病이 크게 돌아 京都 또는 나라 전체에 크게 疫病이 유행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疫은 2차례 사용한 것이 모두 飢와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飢饉 상태에서 발생한 疫病을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民疫은 고구려 소수림왕 7년 조에 한 번 나오는데, 지배계층이 아닌 하층 계급에서 疫病이 크게 유행한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疾疫은 고구려 영양왕 9년 조에 한 번 나오는데, 장마철에 홍수로 인하여 軍中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급속하게 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콜레라는 대개 24시간 이내에 과도한 물설사를 하고, 이후 탈수 증세가 나타나므로, 疾疫과 잘 맞아떨어지는 병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병 관련 기사는 신라 8건, 백제 6건, 고구려 4건이다. 신라의 역병 발생 기록은 통일 이전 시기의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라

남해차차웅 19년(22년)

역병이 크게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⁴⁾

지마이사금 9년(120년)

봄 2월에 큰 별이 월성 서쪽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3월에 서울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⁵⁾

일성이사금 16년(149년)

가을 8월에 혜성[星孛]이 천시(天市)에 나타났다. 겨울 11월에 우레가 쳤고, 서울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 ⁶⁾

아달라이사금 19년(172년)

2월에 시조묘에 변고가 있었다. 서울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⁷⁾

(170년에는 “가을 7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변경을 노략질하였다.”⁸⁾라는 기사가, 171년에는 “봄에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⁹⁾라는 기사가 있다.)

내해이사금 8년(203)

겨울 10월에 말갈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렸다.¹⁰⁾

내물이사금 34년(389년)

봄 정월에 서울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 2월에 흙이 비처럼 내렸다. 가을 7월에 누리의 재해가 있었고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¹¹⁾

4) 『三國史記』卷1「新羅本紀」〈南解次次雄〉十九年條。
“大疫，人多死，冬十一月，無米。”
5) 상계서 卷1「新羅本紀」〈祇磨尼師今〉九年條。
“春二月，大星墜月城西，聲如雷，三月，京都大疫。”
6) 상계서 卷1「新羅本紀」〈逸聖尼師今〉十六年條。
“秋八月，有星孛于天市，冬十一月，雷，京都大疫。”
7) 상계서 卷2「新羅本紀」〈阿達羅尼師今〉十九年條。
“二月，有事始祖廟，京都大疫。”
8) 상계서 卷2「新羅本紀」〈阿達羅尼師今〉十九年條。
“秋七月，京師地震，霜雹害穀，冬十月，百濟寇邊。”
9) 상계서 卷2「新羅本紀」〈阿達羅尼師今〉十九年條。
“十八年，春，穀貴民飢。”
10) 상계서 卷2「新羅本紀」〈奈解尼師今〉八年條。
“冬十月，靺鞨犯境，桃李華，人大疫。”

3) 브린 바너드 저, 김윤희 옮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 도서출판 다룬, 2006:3, 8-15.

(바로 전 해에 “여름 4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6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¹²⁾ 라는 기록이 있다.)

자비마립간 14년(471년)

3월 서울에 땅이 갈라졌는데, 너비가 2丈이었으며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 겨울 10월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¹³⁾

소지마립간 5년(483년)

5년(483) 여름 4월에 홍수가 났다. 가을 7월에도 홍수가 났다. 겨울 10월에 일선(一善) 땅에 거동하여 재해를 만난 백성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있게 나누어 주었다. 11월에 우레가 쳤고, 서울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¹⁴⁾

2) 백제

온조왕 4년(B.C 15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들고, 역병이 들었다.¹⁵⁾
(바로 전 해에 “가을 9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쳐들어 왔다. 왕은 곧세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급히 쳐서 크게 이겼다. 적으로서 살아 돌아간 자가 열에 한둘이었다. 겨울 10월에 우레가 쳤고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었다.”¹⁶⁾

구수왕 16년(228년)

11월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¹⁷⁾

근구수왕 6년(380년)

역병이 크게 들었다. 여름 5월에 땅이 갈라져 깊이 5丈, 넓이가 3丈이나 되었는데, 삼일만에 합쳐졌다.¹⁸⁾

동성왕 21년(499년)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 신하들이 창고를 열어 진휼(賑恤)하여 구제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한산(漢山) 사람으로 고구려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2천 명이었다. 겨울 10월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¹⁹⁾

무령왕 2년(502년)

봄에 백성들은 굶주렸고, 또 역병이 들었다.²⁰⁾

무령왕 6년(506)

봄에 역병이 크게 들었다. 3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 내와 못이 말랐다. 백성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가을 7월에 말갈이 쳐들어 와서 고목성(高木城)을 깨뜨리고 6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²¹⁾

3) 고구려

증천왕 9년(225년)

12월에 눈이 내리지 않고, 역병이 크게 들었다.²²⁾

소수림왕 7년(377년)

겨울 10월에 눈이 내리지 않고 우레가 쳤다. 백성들이 역병에 걸렸다.²³⁾

안원왕 5년(535년)

여름 5월에 나라의 남쪽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죽은 자가 200여 명이나 되었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12월에 우레가 치고 역병이 크게 들었다.²⁴⁾

11) 상계서 卷3 「新羅本紀」〈奈勿尼師今〉三十四年條.
“春正月, 京都大疫, 二月, 雨土, 秋七月, 蝗, 穀不登.”
12) 상계서 卷3 「新羅本紀」〈奈勿尼師今〉三十三年條.
“夏四月, 京都地震, 六月, 又震, 冬, 無水.”
13) 상계서 卷3 「新羅本紀」〈慈悲麻立干〉十四年條.
“三月, 京都地裂, 廣裂二丈, 濁水湧, 冬十月, 大疫.”
14) 상계서 卷3 「新羅本紀」〈炤知麻立干〉五年條.
“夏四月, 大水, 秋七月, 大水, 冬十月, 幸一善界, 存問遭災百姓, 賜穀有差, 十一月, 雷, 京都大疫.”
15) 상계서 卷23 「百濟本紀」〈溫祚王〉四年條.
“四年, 春夏, 旱, 饑疫.”
16) 상계서 卷23 「百濟本紀」〈溫祚王〉三年條.
“秋九月, 靺鞨侵北境, 王帥勁兵, 急擊大敗之, 賊生還者十一二, 冬十月, 雷, 桃李華.”
17) 상계서 卷24 「百濟本紀」〈仇首王〉十六年條.
“十一月, 大疫.”
18) 상계서 卷24 「百濟本紀」〈近仇首王〉六年條.

“大疫, 夏五月, 地裂, 深五丈, 橫廣三丈, 三日乃合.”
19) 상계서 卷26 「百濟本紀」〈東城王〉二十一年條.
“夏大旱, 民饑相食, 盜賊多起, 臣寮請發倉賑救, 王不聽, 漢山人亡入, 高句麗者二千, 冬十月, 大疫.”
20) 상계서 卷26 「百濟本紀」〈武寧王〉二年條.
“春, 民饑且疫.”
21) 상계서 卷26 「百濟本紀」〈武寧王〉六年條.
“春, 大疫, 三月至五月不雨, 川澤竭, 民饑, 發倉賑救, 秋七月,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22) 상계서 卷17 「高句麗本紀」〈中川王〉九年條.
“十二月, 無雪, 大疫.”
23) 상계서 卷18 「高句麗本紀」〈小獸林王〉七年條.
“冬十月, 無雪雷, 民疫.”
24) 상계서 卷19 「高句麗本紀」〈安原王〉五年條.
“夏五月, 國南大水, 漂沒民屋, 死者二百餘人, 冬十月, 地震, 十二月, 雷, 大疫.”

영양왕 9년(598년)

漢王 諒의 군사가 임유관(臨渝關)으로 나와서 홍수를 만나 군량의 운반이 이어지지 못하자,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또 역병에 걸렸다.²⁵⁾

2. 疫病의 原因 인식과 對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의 각국은 역병이 크게 도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았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병이 들 때의 다른 상황들을 같이 기록해 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이 역병에 대한 병리기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기상 이변은 역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역병이 크게 유행한 그 해, 또는 그 이전의 해에 역병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써 입증된다.

여러 가지 이변 현상 중에 가장 빈번했던 것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총 6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 3건, 백제 1건, 고구려 2건으로,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고, 음력 10월에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는 등의 이상 고온 현상이 역병을 일으킨다고 고대인들은 인식했다. 복숭아꽃과 오얏꽃은 일반적으로 4월에 피는데²⁶⁾, 이 때 기온은 보통 섭씨 12~13도 사이이다.²⁷⁾ 음력 10월은 보통 양력 11~12월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온도가 급강하여 11월은 섭씨 10도를 넘지 않으며, 12월은 섭씨 5도를 넘지 않는다.

『東醫寶鑑』 「瘟疫門」에서는 “대체로 돌림병은 봄 날씨는 응당 따뜻해야 하나 도리어 차고, 여름 날씨는 응당 더워야 하나 도리어 서늘하며, 가을 날씨는 응당 서늘해야 하나 도리어 덥고, 겨울 날씨는 응당 추워야 하나 도리어 따뜻한 것 등 해당한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1년 동안에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비슷한 증상으로 앓게 되는데 이것이 곧 時行 瘟疫이다. 민간에서 天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²⁸⁾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을 신라, 백제, 고구려인들은 이미 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이변 현상은 지진으로, 신라 3건, 백제 1건, 고구려 1건으로 총 5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사서에 기록될 정도의 지진이면 그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자비마립간 때는 땅이 갈라진 넓이가 2丈이었으며, 근구수왕 때의 지진은 깊이가 5丈, 넓이가 3丈씩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에 인명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모든 시신들을 수습하여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疫氣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시설물의 파괴로 인하여 주변 환경 자체가 불결해지기 때문에 역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기상 이변은 아니지만, 전쟁 역시 역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에 관련된 기사는 3건이 나온다. 전쟁은 단시간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진과 마찬가지로 적시에 시신의 수습이 어렵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역시 『東醫寶鑑』 「瘟疫門」에서 “이 병은 개울물이 잘 흘러내리지 않아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지 못하고 혼중되어 생기거나, 땅에서 짐승 쉼은 기운이 몹시 몰렸다가 발산되면서 생기거나, 관리들의 고문과 악형으로 고통과 원한이 쌓여서 생긴다.”²⁹⁾라고 한 것과 내용상 일맥상통한다.

이 외에 빈번했던 현상 중에 장마, 홍수, 가뭄, 서리 등이 있는데, 이는 식량 생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어,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이 감퇴되어 역병이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레와 혜성의 출현을 역병과 연관시킨 것인데, 이는 하늘을 숭배했던 고대인들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대 사회 이전의 고조선 시기에 고조선 최고의 신은 하늘이었는데, 하늘은 원래 고조선 건국의 중심 종족이자 최고 지배족이었던 조선족의 수호신이었다.³⁰⁾ 이러한 하늘 숭배 사상은 이후에도 이어져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고,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의식을 지냈으며, 삼한은 5월과 10월에 각각 제천의식을 지냈다. 이처럼 하늘을 경배하던 고대인들에게 갑작스런 하늘의 기상변화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늘이 노하여 역병이 유행하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5) 상계서 卷20 「高句麗本紀」〈嬰陽王〉五年條.
“漢王諒，軍出臨渝關，值水潦，餽轉不繼，軍中乏食，復遇疾疫。”
26) 김창민 외 3인, 『(完譯)中藥大辭典』 3, 1999:1037.
27)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참조.
1971~2000년 동안 남한의 4월 평균기온. 현재와 과거의 기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술한 것임.
28) 許浚, 『(原本)東醫寶鑑』 「瘟疫」〈瘟疫之因〉, 南山堂, 1998:525.
“凡時行病者，春應暖而反寒，夏應熱而反涼，秋應涼而反熱，冬應寒而反溫，非其時而有其氣，是以一歲之中，病無長幼，大率多相似，此則時行瘟疫之氣，俗謂之天行，是也。”

29) 상계서, 「瘟疫」〈瘟疫之因〉, p.525.
“斯疾之召，或溝渠不泄，穢惡不修，熏蒸而成者，或地多死氣，鬱發而成者，或官吏枉抑，怨讟而成之者。”
30) 윤내현 지음, 『고조선 연구』, 일지사, 2004:721.

이처럼 고대인들은 역병의 발병 기전에 대해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병 기전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처도 적절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병” 이라고 표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질병과는 달리 역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환자와의 격리를 최우선으로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병의 유행하는 이유가 하늘이 노한 것이라 인식하여, 국가적으로는 국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식량을 일반 백성들에게 구휼하고, 중죄인을 제외한 죄인을 석방하며, 역병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³¹⁾ 이러한 의식의 시행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역병의 유행은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III. 결 론

1. 신라, 백제, 고구려, 고대 삼국은 역병이 크게 도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았다. 특히, 역병이 돌 때의 다른 상황들을 같이 기록해 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은 역병에 대한 병리기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2. 이상 고온 현상, 지진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장마, 홍수, 가뭄, 서리 등으로 인한 기아 발생은 역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3. 고대인들은 우레와 혜성의 출현을 역병과 연관시켰는데, 이는 하늘을 숭배했던 고대인들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 역병에 대한 대처로 환자와의 격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적으로는 국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식량을 일반 백성들에게 구휼하고, 중죄인을 제외한 죄인을 석방하며, 역병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IV. 참고문헌

1. 『三國史記』.
2. 許浚, 『(原本)東醫寶鑑』, 南山堂, 1998.
3. 예병일,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염병』, (주)살림출판사, 2007.
4. 브린 바너드 저, 김윤희 옮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 도서출판 다룬, 2006.
5. 김창민 외 3인, 『(完譯)中藥大辭典』 3, 1999.
6. 윤내현 지음, 『고조선 연구』, 일지사, 2004.
7.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31) 앞의 소지마립간 5년의 기사와 무령왕 6년의 기사 참조